제3부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

3부 · 적극적 표지 5: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

『신앙감정론』 제3부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 다섯 번째 적극적 표지 (부흥과개혁사 2005, 정성욱 역, 인쇄 414~439쪽)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먼저 성경을 근거로 명제를 세웁니다. 참된 성도는 복음의 진리를 흔들림 없이 확신하고, 그 확신에 삶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상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어야 하고, 이유 있는 '합리적' 확신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성령이 주시는 '영적' 확신이어야 합니다. 영적 확신은 복음에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데서 옵니다. 그 영광은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고, 편견을 걷어 내고 이성을 밝혀 간접적으로도 증명합니다. 역사 논증만으로는 글 모르는 사람이나 순교자의 확신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에드워즈는 일반적인 깨달음, 상상과 환상, 자기 이익이라는 세 가지 가짜 확신을 가려냅니다.

🪪 표지 카드

표지 5(적극): 은혜로운 감정에는 신적인 일들이 실재하고 확실하다는, 이치에 맞고 영적인 확신이 마음의 판단에 함께 있다.

뜨거운 감정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복음이 정말 참이다'라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확신도 교육이나 남의 말, 신비 체험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본 데서 나와야 참 은혜의 표지가 됩니다.

📜 1. 명제와 성경의 증언: 성도는 복음을 확신한다

에드워즈는 이 책의 토대 본문인 베드로전서 1:8에 이 표지가 이미 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보지 못했어도 믿고 기뻐한다는 말 자체가 확신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복음의 큰 진리를 두고 더 이상 두 견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논쟁거리가 아니라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자기 모든 것을 걸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실제로 감정을 다스리고 행동을 바꿉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 머리로 동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정말 그렇다는 것을 '봅니다'. 에드워즈는 이 점을 보이려고 복음서와 서신서의 많은 구절을 차례로 듭니다.

1. 참 성도는 복음 진리를 의심하지 않는다
2. 확신이 있어 모든 것을 걸 수 있다
3. 확신은 감정과 삶을 실제로 다스린다
4. 동의를 넘어 '정말 그렇다'고 본다

> **베드로전서 1:8**
> 책의 토대 본문. 보지 못해도 믿는 확신이 기쁨의 뿌리다
>
>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 **마태복음 16:15~17**
> 베드로의 고백은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
>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 **요한복음 6:68~69**

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6~8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줄 “참으로” 알았다

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고린도후서 4:13~14

“믿는 고로 말하노라”. 확신이 담대한 증언으로 이어진다

13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14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고린도후서 5:1, 6~8

하늘 집이 있는 줄 '알기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다

고린도후서 5:1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6-8 6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8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의뢰한 분을 알고 확신하기에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요한일서 5:4~5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재료에 '고린도후서 1:16'으로 적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는 고린도후서 4:16입니다. 히브리서 3:6, 히브리서 11:1과 11장 전체, 요한일서 4:13~16도 함께 인용됩니다.)

📜 2. 확신 없는 감정, 그리고 '말씀이 떠올랐다'는 착각

많은 신앙감정은 이런 확신 없이도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전보다 더 확신하는 듯 보이고 공개적으로 찬동합니다. 그러나 깊고 지속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회심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전보다 복음을 더 확신하며 살지 않습니다. 정말 확신했다면 지금처럼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이런 감정을 삼 부스러기에 붙은 불꽃, 가시나무 타는 딱딱 소리, 뿌리 없는 돌밭의 싹에 비유합니다. 더 교묘한 착각도 있습니다. 갑자기 성경 구절이 마음에 떠올라 '네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직접 알려 준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그는 “진리로다!” 하고 외치지만, 그가 확신한 것은 사실 '내 상태가 좋다'는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삶의 열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특정한 사람의 구원을 선언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구원의 길, 영광의 세계라는 복음의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간다'는 명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감정은 망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1. 확신 없는 감정은 크고 요란해도 짧다

3. 떠오른 구절의 '내 구원 선언'은 망상이다

4. 진리의 대상은 복음 내용이지 내 상태가 아니다

> **마태복음 13:20~21 (암시)**
>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 없어 곧 넘어지는 돌밭
>
> 마태복음 13:20-21 [20]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 **누가복음 8:13 (암시)**
>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잠시 동안 믿는” 사람들
>
> 누가복음 8:13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 **전도서 7:6 (암시)**
> 가시나무 타는 소리처럼 요란하지만 금방 꺼지는 감정
>
> 전도서 7:6 우매한 자들의 웃음 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이 절의 구절들은 에드워즈가 장절을 밝히지 않고 표현으로만 끌어온 것입니다.)

📜 3. 합리적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영적이어야 한다

복음 자체를 강하게 확신한다 해도 그 확신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합리적 확신은 참된 증거와 정당한 이유에 기초한 확신을 말합니다. 부모와 이웃과 나라가 믿으니 이슬람교가 참이라고 확신하는 무슬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방식으로 기독교를 믿는다면, 대상이 우연히 더 나을 뿐 믿음 자체는 더 낫지 않습니다. 진리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육받아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실과 논리를 근거로 믿는다고 해서 은혜로운 감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믿은 무리, 마술사 시몬도 그랬습니다. 성령이 생명의 원리로 안에 계신 사람에게는 질이 전혀 다른 '영적 믿음'이 있습니다.

1. 교육받은 대로 믿는 확신은 무슬림과 같다
2. 합리적 확신은 참된 증거에 선 확신이다
3. 논리적 동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한다
4. 유다, 표적 신자, 시몬이 그 예다
5. 성도의 믿음은 질 자체가 다르다

> **요한복음 2:23~25**
>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께서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 사람들
>
> 23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 아셨음이니라

> **사도행전 8:13, 23**
> 이적을 보고 믿었으나 악독에 빠져 있던 시몬
>
> **사도행전 8:13**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
> **사도행전 8:23**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 **디도서 1:1**
> “택하신 자들의 믿음”. 성도에게만 있는 믿음이 있다
>
>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 **요한복음 16:27**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요한일서 5:1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났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10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절은 생략)

📜 4. 영적 확신은 영적 이해에서 나온다

앞 표지(영적 이해)에서 다룬 대로, 올바른 판단은 올바른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영적으로 확신하려면 먼저 복음을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마음을 밝혀 복음의 본질을 열어 보여 주실 때 비로소 그것이 참되고 거룩하다고 믿게 됩니다. 영적 이해란 복음 안에 있는 거룩하고 지고한 탁월성과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세상 신이 불신자의 마음을 가려 복음의 광채를 못 보게 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고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이 봄에서 시작됩니다.

1. 바른 판단은 바른 이해에서 나온다

4. 믿음은 그리스도 얼굴의 영광을 볼 때 생긴다

누가복음 10:21~22

아버지와 아들은 계시를 받은 자만 안다

2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2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요한복음 6:40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믿음은 봄에서 나온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16~17

베드로의 확신은 하늘 아버지의 계시에서 왔다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갈라디아서 1:14~16

하나님이 아들을 바울 "속에 나타내실"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14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15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3~6

[3]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6]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3:18

주의 영광을 보매 그 형상으로 변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 5. 직접적 방식: 영광 자체가 증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복음이 신적이라는 확신이 '직접' 생깁니다. 영광 자체가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성에 맞는 확신입니다. 길고 복잡한 추론이 필요 없을 뿐, 근거가 있습니다. 논증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이므로, 그분의 아름다움에는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비유를 듭니다. 어른의 말과 아이의 말이 다르고, 호머, 키케로, 밀턴, 로크, 애디슨 같은 천재의 글이 보통 사람의 글과 확연히 다릅니다. 사람의 작품에 익숙한 사람이 태양을 보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사람의 것과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본 외적 영광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라는 영적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밀턴의 글이 저급한 사람에게는 시시해 보이듯, 부패한 마음은 이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2. 긴 추론 없이 한 걸음으로 진리에 닿는다
3. 천재의 글처럼 신적인 것은 표가 난다
4. 제자들은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보았다
5. 부패한 마음은 눈멀어 그 영광을 못 본다

> **요한복음 1:14**
>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보았다
>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베드로후서 1:16~18**
> 변화산에서 위엄을 "친히 본" 베드로. 공교한 이야기가 아니다
>
>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 17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사람의 지성은 단지 한 걸음만 내딛어도 복음의 진리에 다다른다."

📜 6. 거룩의 감각이 복음의 교리들을 하나씩 참되게 보여 준다

복음의 진리는 복음의 탁월성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성이 보이는 곳에서 진리도 보입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열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낯설던 교리들이 즉시 참되게 보입니다. 에드워즈는 그 교리들을 차례로 짚습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은 죄의 추악함을 봅니다. 단맛을 아는 혀가 쓴맛을

하나님의 존엄과 선하심, 죄에 대한 형벌의 정당성, 사람이 스스로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얼마나 존귀한지 보이니 그 보혈과 희생이 충분하다는 것도 보입니다. 구원의 길과 계획이 지혜롭고, 사람의 행복이 거룩함에 있으며, 천국이 영광스럽다는 것도 보입니다. 성경의 체험적 신앙이 참되다는 것도 직접 체험으로 압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우리보다 우리 마음을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1. 복음의 진리는 그 아름다움에 기대어 있다
2. 거룩을 보면 죄의 추악함이 보인다
3. 원죄, 구주의 필요, 속죄가 참되게 보인다
4. 구원 계획의 지혜와 천국 영광도 보인다
5. 성경 저자가 내 마음을 아신다고 확신한다

> **고린도후서 4:4~6 (앞 절 구절의 적용)**
>
> 가려진 눈이 열려 빛을 보니 복음 전체가 새롭게 보인다
>
> **고린도후서 4:4-6** [4]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6]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단락에서 에드워즈는 구절을 따로 인용하지 않고, 복음의 교리들을 차례로 짚으며 논증합니다.)

📜 7. 역사 논증만으로는 부족하다

복음의 내적 영광을 보지 못하면, 글을 모르거나 역사에 어두운 사람은 결코 철저한 확신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들도 학자의 말을 따라 '그럴듯하다'고는 생각할 수

쏟아집니다. “그 기록이 언제 쓰였는지 내가 어떻게 알지? 학자들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알지?” 그런데 복음은 학식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에드워즈는 스무 명 중 열아홉은 학자의 증거로 확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기독교를 배우고 싶다고 한 호우사투누크 인디언들이 역사 공부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그들은 비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맹세와 표징으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복음이 자기 말씀이라는 증거를 '있을 법한' 수준으로만 주셨을 리 없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 이후의 순교자들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 문맹자였습니다. 역사 논증이 정교해진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대에 불신앙이 가장 널리 퍼졌습니다.

1. 역사 논증은 '그럴듯함'까지만 준다
2. 시련이 오면 의심이 끝없이 남는다
3. 복음은 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4.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주셨을 것이다
5. 순교자 대부분은 문맹자, 여성, 아이였다

> **사무엘하 23:5 (암시)**
>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모든 일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
> **사무엘하 23:5**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 **히브리서 10:22**
>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온전한 확신을 원하신다
>
>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 **골로새서 2:2**
>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 확신의 충만함이 목표다
>
>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빌립보서 3:8 (암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한 확신이 필요하다

> **빌립보서 3: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 8. 순교자는 '본 사람', 곧 증인이다

성경에서 '순교자'는 '증인'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증인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참된 순교자는 복음이 참되다는 강한 견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본' 사람입니다. 큰 시련 속에서 거룩한 행실로 믿음을 보여 준 모든 성도도 증인이라 불립니다. 그들은 복음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증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랬습니다. 다만 영적 눈이 얼마나 맑은지에 따라 믿음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 내적 증거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에드워즈는 외적 논증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외적 논증은 불신자를 일깨우고 성도의 믿음을 깊이 숙고하게 돕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니 큰 가치가 있습니다.

1. 증인은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본 사람이다
2. 순교자는 복음의 진리를 '본' 자다
3. 믿음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4. 참 믿음에는 내적 증거가 반드시 있다
5. 외적 논증도 큰 가치가 있다

요한복음 3:11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증인의 정의

>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요한복음 1:34

세례 요한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일서 4:14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사도행전 22:14~15

바울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된다

14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히브리서 11:1; 12:1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 믿음,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2: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베드로후서 1:16

변화산의 제자들은 친히 본 목격자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은 그 자체로 그 안에 가장 탁월하고 적합한 증거가 있다."

📜 9. 간접적 방식: 편견을 걷고 이성을 밝힌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간접적으로도 확신을 줍니다. 첫째, 마음의 편견을 걷어 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복음에 적개심이 있습니다. 이 적개심 때문에 증거를 들어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거룩함을 보면 적개심이 무너지고 이성이 풀려납니다. 그리스도의 기적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제자들을 더 잘 설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본 것이 그들의 편견을 걷어 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성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흐릿한 개념을 생생하게 하고, 그것에 마음을 모으게 하며,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또렷이 보게 합니다. 별빛이나 황혼 아래서 보던 땅의 사물을 햇빛 아래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1. 사람은 본래 복음에 적개심이 있다
2. 거룩을 보면 편견이 녹고 이성이 풀린다
3. 제자와 바리새인의 차이는 지능이 아니다
4. 영광은 흐릿한 개념을 햇빛처럼 밝힌다

> —
> 이 단락에서 에드워즈는 구절을 따로 들지 않고, 제자와 바리새인의 대조, 별빛과 햇빛의 비유로 논증한다

📜 10. 사람들이 속는 세 가지 길

에드워즈는 영적 확신으로 오해되는 가짜 확신 세 가지를 짚습니다. 첫째, 성령의 일반적인 깨달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력,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옥이 있다고 더 쉽게 믿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도덕적 아름다움은 보지 못하므로 영적 확신이 아닙니다. 둘째, 상상과 환상, 강한 충동입니다. 보좌에 앉은 빛나는 사람의 형상을 보거나 음성을 들었다고 느끼면 영적 세계가 있다고 강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사제들이 조작해 조각상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짓 기적도 잠시 복음 이야기를 믿게 합니다. 무당이 사탄과 교제하는 경험조차 영의 세계가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거짓에 진리를 섞으며, 결국 말씀을 떠나 불신앙과 무신론으로 이끕니다. 셋째, 자기 이익입니다. 먼저 '천국이 있다면 내 것'이라고 확신하면 천국의 실재를 쉽게 믿습니다. 지옥이 자기 몫이라면 믿지 않았을 사람도, 남의 몫이라 여기면 쉽게 인정하고 오히려 남의 무감각을 탄식합니다. 이해관계가 판단을 얼마나 기울이는지 보여 주는 예입니다.

1. 일반 깨달음은 위엄만 보고 거룩은 못 본다
2. 환상과 음성은 잠시 강한 확신을 준다
3. 거짓 기적과 사탄은 진리를 섞어 속인다
4. 그 끝은 말씀 이탈과 무신론이다
5. '천국은 내 것'이라는 이익이 판단을 흐린다

> **요한일서 4:2 (암시)**
> 거짓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참으로 확신시키지 못한다
>
> **요한일서 4:2**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단락은 주로 예화로 논증하며, 사두개인의 교리, 곧 영의 세계를 부인하는 가르침이 언급됩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 S4 | PDF | S6 →

마음이 무엇에 끌리거나 거부하며 강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단순한 기분보다 깊은 의지의 움직임이다.

합리적 확신
교육이나 남의 견해가 아니라 참된 증거와 정당한 이유에 기초한 확신이다.

영적 확신
성령이 마음을 밝혀 복음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때 생기는, 거듭난 사람만의 확신이다.

영적 이해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그 안의 거룩한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맛보는 것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자연인)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아 본성 그대로인 사람이다.

일반적인 깨달음
성령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시는 깨우침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은 느끼게 하지만 거룩의 아름다움은 보게 하지 못한다.

본성적 완전성과 도덕적 완전성
앞의 것은 하나님의 크심, 능력, 위엄이고, 뒤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하심이라는 아름다움이다.

직관적 앎
긴 추론의 사슬 없이 한 걸음으로 진리를 알아보는 것으로, 근거 없는 믿음과는 다르다.

내적 증거와 외적 논증
앞의 것은 복음 자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뒤의 것은 역사, 기적, 전통 같은 바깥의 근거다.

증인(순교자)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참된 은혜의 감정은 '복음이 정말 참이다'라는 깊고 실제적인 확신에서 나옵니다.
- 그 확신은 내 상태가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이나 논리를 넘어 성령이 주시는 영적 확신이어야 합니다.
- 영적 확신은 복음에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데서 옵니다. 그 영광은 직접 증거가 되고, 편견을 걷어 이성을 밝힙니다.
- 그래서 글 모르는 사람도, 순교자도 '본 사람', 곧 증인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 위엄에 대한 두려움, 환상, 자기 이익에서 나온 확신은 아무리 강해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16편 · 왜 믿는지 말할 수 있는 믿음 · 표지 5 진리 확신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